

기고

한요택 담양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



18원·1004원 정치후원금

올해에도 18원 후원금, 1004원 후원금이 이어졌다. 여야 국회의원을 향한 반감을 담은 18원 후원금과, 반대로 응원 메시지가 담긴 1004원 후원금도 있었다.

이와 같은 소액후원금은 선거전과 후의 모습이 다르고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해 실망감과 격려를 나타내는 무언의 의사표시가 아닐까 싶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소액후원금을 보내는 국민을 배경으로 둔 정당·국회의원은 초심대로, 국민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전액 돌려받는다. 이 제도는 검은 돈 받지 말고

의정활동 잘해서 국민으로부터 소액후원금을 받으라는 취지이다.

소액다수 후원금이 있으면 영등한 곳에 가서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면 흥미를 가질 여유가 없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은 내 삶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절대 다수의 무관심은 소수의 기득권 보장으로 이어질 개인성이 농후하다.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참여의식을 높이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방법 중 하나

나가 정치후원금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은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되게 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있어야 한다.

정치자금에 인체에 비유하면 혈액과 같다. 민주정치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 정치후원금은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기탁받아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정당·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에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하면 된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기부하면 될까.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야 하나?

그래도 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KaKaoPay, PAYCO, Paynow) 등으로 기부하는 간편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다.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은 정당과 정치인에게 깨끗한 정치에 소요되는 활동비를 공급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방지하여 절대다수를 위한 민주정치 발전의 씨앗이 될 것이다.

정치권으로 하여금 고액의 후원금을 내는 소수 기득권층을 대변하기 보다는 소액다수의 후원금을 통하여 절대다수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나의 권익을 대변할 정당·국회의원에 합법적으로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은 올바른 정치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며, 나의 의사를 국가정책과 정치에 반영함으로써 밝은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社說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지지만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강원 원주)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2014년 24.83%에서 올해 35.40%로 증가했다.

정역, 금고 등 자유형을 받은 사람은 2014년 전체의 24.6%, 올해 전체의 26.6%에 불과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 역시 2014년 37.08%에서 올해 39.54%로 다소 증가했다. 자유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2014년 26.7%에서 올해 35.3%로 다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벌금 등 재산형의 선고를 받

은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수치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이 기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1만8248명으로 전체 2만8185명의 64.74%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은 기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5515명으로 전체 1만1144명의 절반 수준인 54.37%에 불과해 경미한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해 외국은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경미한 처벌을 내리는데 그치고 있다.

성폭력 범죄, 특히 이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지만 법원의 판결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정서에 맞는 성범죄 양형기준이 논의돼야 할 때이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법원 역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반)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경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브랜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당신만이 가진 존귀한 가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잔디가 더 푸르려 보인다. 속담은 모두 남의 처지가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남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고 자기가 하는 일은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며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남들은 쉽고 신나게 살아가는데 나만 힘들게 고생하는 것 같다.

결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은 한편으로는 우월감을 낳을 뿐이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기가 죽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힘이 솟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안돼'라는 생각 쪽이 훨씬 우세하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하면서 같은 동료나 더 우월한 지위를 갖거나 더 잘나가면 왠지 주눅 들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생활하다 보면 항상 나에게 좋은 일 보다는 힘든 일 나쁜 일이 있

기 마련이고 잘 풀리지 않는 일이 겹겹이 산재해 있기 마련이므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만사가 귀찮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당신만이 가진 수 있는 인성과 재능이 있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복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욕심은 줄이고 가진 것에 대한 만족으로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존귀함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당신만의 장점과 재능을 가진 개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고 당신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나의 장점 나의 재능을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당신이 아무리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고 비참한 듯 느끼더라도 그건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런 모습은 단지 당신이 느끼는 느낌일 뿐이다. 당신은 빛나는 사람이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 존귀한 가치가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힘들더라도 희망을 갖고 생활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종균 / 광주북부소방서 행정지휘담당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